

# 육추의 이론과 실제

김 춘 수

(한일농원 기획실)

“理論과 實際”열론 듣기에는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 같아 어떻게 전개하여 나가야 할지 모르겠으나 實際란 理論을 바탕으로 現實에 맞추는 것인 만큼 育雛의 重要性을 강조하면서 育雛要領을 간략하게 약술 하여 보고자 한다.

육추기간중의 불량한 사양관리는 직접 병아리 자체에 영향을 주어 폐사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영향은 산란기에도 연장되어 산란율을 저하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병아리가 도착되어 처음 며칠간 소홀히 한 것이 결국 개체간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나타내어 이때 생긴 발육의 차이가 일생동안 극복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육성중 고르게 자라지 않은 닳은 일시에 산란 피크를 지날수 없으므로 자연 전체 산란율이 낮을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닭이 갖고있는 유전적 기능을 100%발휘하기 위해서는 육추기간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재삼 강조하게되는 것이다.

## 1. 외모로 본 건강한 병아리

병아리의 선택은 양계업의 성패를 제일 먼저 가름한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사료를 급여한다 하더라도 품종이 나쁘거나 건강하지 못한 병아리를 갖고는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우선 병아리를 고를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고르는 것이 좋다.

- ① 병아리가 또렷또렷하지 못하고 날개가 길며 털이 부실부실 하다.
  - ② 배꼽이 덜 아물어 있다.
  - ③ 거품이 섞인 똥을 배설한다.
  - ④ 계란 겹질이나 펫발이 것이나 털에 묻어 있다.
  - ⑤ 운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다.
- 이상과 같은 병아리는 건강하지 못한 병아리니 끌라내어 도태하는 것이 좋다  
건강하지 못한 병아리는 애당초 병을 짊어지고 온 병아리라 생각하면 된다

## 2. 병아리 도착전에 지켜야 할 일

육추사는 올인, 올아웃(all-in, all-out) 방식을 채택할 것이며 아우트 뇌고 재입추 하려고 할때 최소한 20일 전에 원전히 물청소를 하고 견조시킨 후 소독을 하여야 한다.

병아리는 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의견상 건강하게 보이는 성계가 병원균이나 기생충을 갖고 있다면 곧 병아리에 감염될 것이다. 따라서 성계사와 육추사는 가급적 멀리 떨어져 성계와 병아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하는 기회를 피해야 함은 물론이고 성계사와 육추사의 관리자는 각기 다른 사람이어야 하며 육추실 선용 신발을 비치하여야 한다. 한

편 외부인의 출입을 가급적 금하여 외부로 부터 병원미생물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육추기 설치 깔짚 깔기, 모이통 대용으로 쓸 종이 깔기, 물통배치, 난로가동, 온습도 점검등의 육추실 준비가 병아리를 도착전 24시간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 3. 병아리 도착시의 주의 사항

병아리가 농장에 운반되어 오면 우선 상자내의 온도가 과온 또는 지나친 저온인가를 조사하고 과온시에는 서늘한 곳에 빨리 풀어주고, 지나친 저온으로 병아리가 얼었을 시는 빨리 따뜻한 곳에 놓아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병아리 도착시 육추실의 온도가 낮을 때는 병아리 운반상자를 풀지 말고 그대로 두 상자씩 포개어 칙-가드 옆에 놓아두고 온도가 올라 갈때를 기다린다. 습도는 병아리 탈수방지에 매우 중요하니 60~70%를 맞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첫물, 첫모이는 빠를 수록 좋다.

과거에는 초생수가 난황을 뱃속에 지니고 있어 부화후 48시간은 병아리에 모이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화장으로부터 병아리 도착후에도 첫모이 시간이 안되었다고 생각하여 박스속에 넣어둔채 하룻밤을 세운다든지 하는 잘못을 니년간 양계업에 몸바쳐 온 양계인들도 반복하여 왔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견해로 병아리는 부화후 가급적 빨리 양계장에 운송되어 즉시 물과 모이를 주는 것이 성장율과 사료효율에 극히 중요하다는 것이 알려졌다. 이러한 사소한 잘못이 병아리의 폐사율을 높임은 물론 강주를 약주로 만들어 사양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특히 성장 속도와 사료효율이 중요시 되는 부로일러에 있어서는 양계장에 도착하는 즉시 물과 모이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으로 볼때 병아리가

도착하자 마자 가급적 빨리 병아리를 풀어 사료와 물을 찾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 좋다.

### 5. 첫물, 첫모이 주는 요령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1주일 이내에 죽은 병아리를 해부해보면 모이를 전혀 먹지 못했거나 나리기 많아 죽은 날수증에 의한 폐사를 볼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물과 사료를 찾지 못하고 굶어 죽은 것인데 원인을 살펴보면

① 첫모이 시간을 재다가 첫모이 시간이 지연 되었을 경우

② 물통과 모이통이 보자랄 경우

③ 물통의 설치 위치가 나쁘울 경우.

④ 물통과 모이통이 초생추에 맞지 않을 경우.

⑤ 물통과 모이통에 깔짚이나 잡물이 들어가 먹지 못하였을 경우.

⑥ 밀사로 밀려나 사료나 물을 먹지 못하였을 경우 등을 들수 있다.

처음 2~3일간 사료를 손쉽게 급여 할수 있다 방법은 약간의 사료허설이 있더라도 사료포대 종이를 3장 겹쳐 바닥 깔짚 위에 깔고 하루 한장씩 제거 하면서 그위에 수용성 비타민과 항생제를 탄물로 버물인 사료를 넓게 뿌려주어 일단 병아리가 모이통을 찾지 않아도 사료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일째부터 가루 모이통을 설치하여 젖은 모이와 함께 주다가 5일째부터는 젖은 모이를 주지 않고 가루 모이만 주면 된다. 또 병아리의 음수욕을 유발시키기 위하여 설탕이나, 포도당, 영양세를 타서 주는 것도 좋다. 그러나 가장 주의하여야 할점은 물통설치가 충분하다고 하여도 물통에 물이 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병아리는 물이 없으면 상당한 거리 까지 물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물먹는 연습이 안되었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육추실 내의 온도가 30°C 정도라고

할 때 많은 양의 물이 수증기로 증발해 버리기 때문에 여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물통은 항상 깨끗이 하여 더러운 물을 마시지 않게 하므로서 질병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첫 물 출때는 처음 7 일동안 수용성 비타민과 항생제를 타서 주는 것이 좋으며 물통은 200수당 3개를 준비하는 것이 합당하다.

초생추의 첫모이 시간이 늦어 질수록 병아리에게는 물먹이는 문제가 중요해진다. 부화된지 얼마 안되는 초생추는 모이를 먼저 주든 물을 먼저 주든 별 영향이 없으나 장거리 발송된 병아리거나 첫모이 시간이 늦어진 병아리 일수록 모이 보다 물을 먼저 먹이도록 하는 것이 탈수증을 예방하는데 좋다.

## 6. 육추온도

가장 이상적인 육추 온도는 입추 1주일 까지만 32°C 이상을 유지하고 1주후부터는 병아리가 견딜 수 있는한 가급적 빨리 온도를 떨구는 것이 좋다. 이는 병아리의 털이 빨리 자라나고 많이 나게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조기 폐온은 계절이나 계사의 시설에 따라 다르지만 3~4주령 이후면 폐온이 가능하다. 폐온후 육성에 좋은 실내온도는 12~18°C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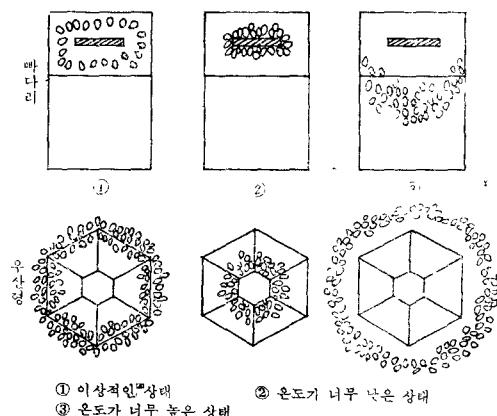
육추온도표

일령	삿갓끝의온도	실내온도
처음 7일간	32°C	26°C
8일령부터	28°C	24°C
15일령부터	24°C	20°C
21일령부터	20°C	18°C

그러나 가급적 온도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병아리의 운동상태, 울음소리등에 의하여 상태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그림은 온도와 병아리의 상태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1〉 첫모이후 2~3일령까지 병아리의 상태



① 이상적인 상태  
② 온도가 너무 낮은 상태  
③ 온도가 너무 높은 상태

## 7. 밀사는 금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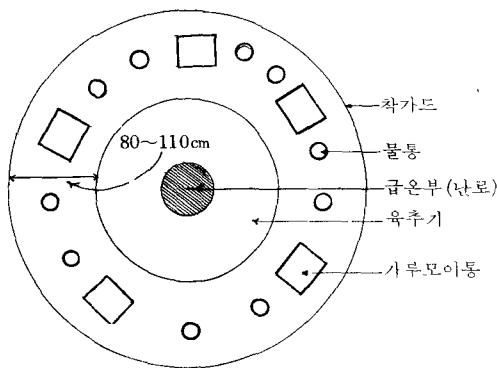
양적인 증가 의욕으로 미치 계사준비가 되어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입추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다 그러나 밀사는 육성율, 증체율을 낮출 뿐만 아니라 여타 조건이 다 좋다고 하여도 밀사 하나 만으로도 육추는 망치게 된다.

밀사로 일어나는 피해를 살펴 보면

- ① 사료나 물을 고루 섭취 할수 없게 되어 성장발육에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 ② 자리것이 쉽게 불결 해지 므로 회충이나 콕시류, 장염등을 유발하기 쉽다
- ③ 환기 불량의 원인이 되어 약추를 만들고 호흡기 계통의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 ④ 계군내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악벽이 생기고 자주 놀라게 된다.

적절한 수용밀도는 환기조건, 시설조건등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산란계의 경우는 평당 4주령까지는 70수정도, 8주령까지는 35수정도

〈그림 2〉 육추기 칙-가드 및 가루모이통, 물통 배치도



9 ~18주령은 25수정도가 적당하며 육계도 이에 준하여 시설, 환기조건에 따라 수용밀도는 가감할 수 있다.

#### 8. 육추기 준비

삿갓 육추의 경우 1개당 500수를 수용하는 것이 보통이며 고온을 필요로 하는 처음 10일간은 높이 45cm 정도의 칙-가드를 삿갓끝에서 80~110cm 정도 떨어진 곳에 둘러 병아리가 삿갓주위에서 자유로이 모이나 물을 먹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 9. 약품의 적절한 사용은 육성을 높인다.

초생추는 외부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여러가지 질병에 감염되기 쉽다. 이들은 영양관리의 잘못에서, 외부로 부터 병원균의 유입으로, 기계적인 전염등으로 항상 질병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위협속에서 외부환경에 민감한 어린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약품의 적절한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다.

처음 7 일령 까지는 질병을 예방하기도 하고, 사료효율 및 육성을 높이는 의미에서도 개개인의 양계장에 따른 경제적인 항생물질을 선택하여 규정된 농도로 음수 투약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이때 영양제 즉 수용성 비타민과 미량광물질(미네랄 믹스)를 함께 물에 타서 주면 더욱 좋다.

어떤 질병이든 초생추때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경제적이므로 처음 일주일동안의 약제 사용은 효과적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수박 진한기식의 육추상 주의할점과 요령을 살펴 보았지만 채 삼재사 강조 하여도 모자라는 것은 육추과정의 관리가 양계업의 성패를 좌우 한다는 것이니 만큼 육추에 각별한 신경을 기울여 애정을 갖고 병아리를 다룬다면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 생각한다.

### 월간양계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려면.....

▲ 구독료 : 1년분 5,000(송료는 본 협회부담)  
6개월 3,000원

▲ 신청방법 : ① 우편번호 100. 서울시 중구 양동 44-28 축산회관 4층 대한양계협회 편집부로 소환을 동봉하여 주문하시거나,  
② 가까운 우체국에서 서울중앙우체국 대체구좌 519272로 송금하시거나,  
③ 본 협회(전화 ② 3571~2)로 직접 연락하십시오.

▲ 구독연장 : 기왕에 정기구독하시는 분이 기간을 연장하실때는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① 주소가 변경될 때는 즉시 알려 주십시오.  
② 배달사고는 곧 전화나 엽서로 알려주십시오.  
③ 한꺼번에 2년분을 정기구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